

“소재·부품산업 강화해야 경제강국”

문재인 대통령, KIST서 국무회의 주제... 기업 상황 점검 및 격려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는 경제 강국을 위한 국가전략 과제이며, 한·일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라며 “이 분야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을 혁신하고 제조 강국으로 제도약하는 길이며,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진행된 현장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의 자립화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생산 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과 고용의 절반을 차지하고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이라며 “이 산업을 키우는 것은

곧 중소·중견기업을 키우는 것이고 대·중소기업 협력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만드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두 달여 동안 이 분야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명실상부한 국가전략 과제로서 추진동력을 확보했다”며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기술력을 강화하고 공급 안정성을 확보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금융·입지·규제·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해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고 공급 기업의 기술 개발과 주요 기업의 적용을 연결하는 실증 양산 테스트 베드를 확충하겠다”며 “성장 잠재력을 가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해 글로벌 수준의 부품·소재·장비 전

문 기업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뒤에는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있는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지원센터)를 방문, 핵심 소재·부품 수급 동향과 기업의 애로 해결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지원센터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따른 국내 기업의 소재·부품 수급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한 민·관 합동 조직이다. 총 32개 기관에서 39명의 직원이 파견돼 근무 중이며 특정 국가 의존도, 수급차질 시 파급효과, 잠재 애로 제기기업 등을 중심으로 500여 개 중점관리 기업을 선정해 일대일 밀착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주형 기자

트럼프 “만남 갖는 건 좋은 것”

北 9월 하순 대화 제안에 ‘북·미 협상’ 급물살

북한이 9일(현지시간) “9월 하순에 대화하자”며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전격 제안, 한동안 멈춰져 있던 북한 비핵화 실무협상 시간표가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

최설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이날 담화는 북·미 실무협상의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지난 6일(현지시간) 공개강연을 통해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한 지 3일 만에 이뤄졌다.

비건 대표는 당시 북·미협상 실패 시 한·일 내 핵무장론이 제기될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북한에 ‘압박·경고’의 메시지를 함께 던진 바 있다.

북한의 제안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만남을 갖는 건 좋은 것”이라고 긍정적 반응을 보임에 따라 9월 하순 북·미 간 실무협상 테이블 개최가 급물살을 타는 흐름이다. 이로써 그간 교착국면의 중대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핵실험 반대의 날’ 기념

유엔회의서 北비핵화 촉구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8월 29일)’을 기념해 9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보도했다.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유럽연합(EU) 유엔 대표는 “EU는 북한이 즉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들을 준수하기 위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CVID)’ 비핵화를 향한 신뢰할 수 있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동남아 국가를 대표해 발언한 태국 대표는 “아세안 국가들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할 준비가 돼 있다”며 “모든 당사국이 한반도 내 갈등을 줄이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리아 페르난다 에스피노사 유엔 총회 의장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의 라시나 제르보 사무총장 등은 북한을 비롯해 아직 CTBT(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에 서명하거나 비준하지 않은 8개국의 조속한 행동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할머니와 송편 만들기 10일 오전 서울 광진구 수호천사어린이집에서 열린 ‘3대가 함께하는 세대공감 송편 만들기’ 행사에서 어린이집 어린이들과 학부모, 경로당 할머니들이 송편을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시설 분야 분쟁·갈등 효과적 해결 방안 모색

시설본부 - 상사중재원 업무 협약 기업관련 규제 개선 정보도 공유

국방시설본부와 대한상사중재원은 10일 국방시설 분야 분쟁·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이를 위해 규제개혁 세미나 등 제반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기능과 역량을 바탕으로 규제개혁을 위해 민간업체와의 국방시설 분야 분쟁·갈등의 효과적 해결 방안을 모색, 상호 협력관계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은 ‘국방시설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대안 연



국방시설본부와 대한상사중재원이 10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개최한 업무협약식에서 김재봉(육군준장·오른쪽) 국방시설본부장과 이호원 대한상사중재원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국방시설본부 제공

구 ‘국방시설분야 분쟁해결을 위한 공동사업 개발 및 추진’ ‘분쟁의 효율

적 해결 및 분쟁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설본부는 규제개혁을 위한 효율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실제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파악한 뒤 상사중재원과 함께 개선안을 찾기로 했다.

상사중재원은 국방시설본부에 시설 분야 분쟁해결 노하우를 공유하고 시설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국방시설 분야 실무자의 전문성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두 기관은 또 기업 관련 분쟁 해결과 관련 규제 및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계속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맹수열 기자

■ 편집=권나영 기자

공군 활주로 제설 작업

장병 대신 무인화한다

기계연, 2022년까지 38억여 원 투입 개발

국내 연구진이 사람의 힘 없이도 활주로에 쌓인 눈을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국기계연구원(기계연)은 스마트산업기계연구실 차무현 박사 연구팀이 활주로 제설 장비를 무인화하기 위한 특수임무차량 원격운용과 자율급진 주행 기술 연구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연구팀은 우선 기존 공군 활주로 제설 장비를 유·무인 겸용으로 개조하고 나아가 특수차량 운전제어를 통한 제설 장비 무인화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원거리에서 실시간으로 차량을 조작할 수 있는 실감 몰입형 원격운용, 강설환경 같은 극한조건에서 사용하는 센서 융합 및 이를 이용한 자율주행 장애물 대응, 다수 장비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편대주행 통제 등이 개발될 기술들이다. 연구는 2022년까지 진행되며 38억35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주형 기자